

장애인정보격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an Information Ga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이 영 숙(Young-Sook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3.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 2. 장애인과 정보격차 | 3.1 장애인수 |
| 2.1 용어의 정의 | 3.2 데이터 수집 |
| 2.2 관련법 | 3.3 데이터 분석 |
| 2.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시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 3.4 문제점 |
| | 4. 향후 연구과제 |
| | 5. 결 론 |

초 록

본고에서는 장애인정보격차해소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논의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을 통해본 장애인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장애인서비스의 향후 연구과제로 시각장애인의외에도 청각,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ublic libraries and draws many issues and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libraries.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Librar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As a further research users with disabilities study is recommended. Apart from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and physical impairment should be included.

키워드: 정보격차, 장애인
Information Gap, People with Disabilities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ysooklee@nl.go.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1월 15일

1. 서론

세계 각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애써 왔다. 특히 유엔은 1981년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로 정하고, 장애인들의 완전 참여(Full participation)와 평등(Equality)을 표방하며 각국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유엔은 1993년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for Opportun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후 각국은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한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1995년에 제정한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이 있다. ADA는 공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DA로 인해 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국고를 지원받는 도서관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전 도서관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영국의 DDA 또한 공공을 대상으로 물품, 서비스 혹은 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라는 사유로 장애인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97년부터 시행된 DDA로 인해 영국의 도서관계는 처음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한 IT환경 개선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설이나 건물 등 많

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로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었으며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진다. 상기 법에 따르면 장애라는 사유로 장애인들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동법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서관계도 영미의 도서관들과 같이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란 장애인들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을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 비장애인과 같이 자신을 개발하고 잠재능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부여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평생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재정 낭비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국가의 예산도 직접적인 지원분야보다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부분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파워가 된 지식정보시대 장애인들의 정보격차해소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겠다. 즉 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의 기회를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자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을 법으로까지 금지할 수밖에 없

있던 것이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곳곳에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당하여 왔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예로 현재 KOLIS-NET을 통해 전국 약 500여개의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해 보면 약 500만종의 17백만 책이 나온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전국 32개 복지관, 점자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 등(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의 종합목록에는 약 14만종의 자료가 있다.¹⁾ 그러나 이중 중복된 것들을 제외하면 대체자료는 채 5만도 안된다. 다시 말하면 비장애인들을 위한 책의 1% 정도밖에 이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매년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총 출판물(약 50,000종 정부간행물 포함) 중의 2%(1,000종) 미만이 대체자료로 제작되어진다. 거의 98% 이상이 이들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체자료 또한 대부분이 장애인단체나, 복지관, 점자도서관들이 문학류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제작한 것들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서비스의 현황도 열악하지만 지체, 청각장애인 등의 형편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연평균 이용자수가 약 5백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해 장애인 이용자수는 약 6천명에 불과했다.²⁾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인 출현율을 평균 인구 10명당 1명으로 보고 있다. 이 비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48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현재 약 2백만 명에 이른다. 등록된 장애인만 하더라도 전체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6,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도서관은 어느 사회에서든 최고의 지식의 평등자(equalizer of knowledge)로서의 역할을 해왔다.³⁾ 특히 공공도서관이 그렇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성별, 연령, 종교, 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도서관들은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편의시설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또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의사소통과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간혹 이러한 시설과 자료를 갖춘 도서관이 있어도 사서들이 장애와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오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서비스제공자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이들 장애인들을 제대로 서비스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장애인정보격차의 해소는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들에게도 시설, 기

1) Young Sook Lee, *Integra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to Mainstream Library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73th IFLA/WLIC 2007, Durban, South Africa, p.5.

2)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최종보고서, 2007, p.21.

3) Mary Anne Epp, "Closing the 95 Percent Gap: Library Resource Sharing for People with Print Disabilities." *Library Trends*, Vol.54(3), Winter 2006, p.412.

기, 자료, 프로그램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접근의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장애인차별을 금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 학계, 기업, 장애인 당사자 등 관련자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보시대 장애인 정보격차해소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이 의외로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헌정보 학계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학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장애인관련 논문들을 2000년 3월호부터 2007년 9월호까지 조사하여 보았다. 약 970여편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고작 5편이었다.

2006년 새 도서관법 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2007년 5월 22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또 2007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지원센터의 설립과 장차법의 시행은 오늘 우리 도서관계의 미진한 장애인정보격차해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지원센터설립자체가 바로 개별 도서관들의 장애인서비스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원센터는 도서

관과 학계가 장애인정보격차를 화두로 삼아 현장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학계는 이것을 분석하고 이론화하여 정책으로 제시해 주었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는 장애인정보격차가 우리 도서관계의 화두가 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통해 본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에 따른 것임으로 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 장애인과 정보격차

2.1 용어의 정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로 2007년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국가는 장애에 대한 유형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15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의 분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근거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 도서관에서는 굳이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도서관에서는 건물 및 자료의 접근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장애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

류할 수 있겠다. 신체적인 손상 혹은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물리적인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는 상태, 시력의 손상이나 혹은 지적,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일반적인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청력의 상실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서관계에서는 '독서장애'라는 것도 있다. '독서장애'에 대한 정의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신체적, 지적, 혹은 뇌기능 등의 장애로 인해 인쇄물을 읽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일컫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print disability', 혹은 print handicap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난독증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도서관 자료의 대부분이 인쇄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물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도서관에서는 그 어느 장애보다 가장 불리한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와 관련된 용어로 '정보격차'와 '정보소외계층'이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정보격차'를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정보소외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 여부와 또 정보소외계층을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의 이용에만 국한시키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정의가 요구되어 진

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정보접근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도서관장서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인쇄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성 여부도 언급되어야 하겠다.

2.2 관련법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발생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되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부칙으로 2001.1.16에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저소득자와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들 계층들에게 PC 보급과 인터넷가입을 가능하게 해주며 또 이러한 기기를 통해 정보접근과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서관계에서는 2006년 10월 4일 새로 제정된 「도서관법」 제8장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8장은 제43조에서 제4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3조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책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45조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고 있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장애인들의 각종 사회활동의 완전참여와 정보의 접근, 교육 및 고용 기회 등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0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동법 제21조에는 공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에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며 특히 자료를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함)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로 특히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확대자료,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차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상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상의 법들은 도서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내년 4월 11일에 시행예정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제 더 이상 장애라는 사유로 도서관들이 장애인들을 시설 및 자료의 접근과 프로그램 등에서 배제, 소외, 제한, 차별, 거부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침해되었을 때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가 시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2.3.1 정부의 제1,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정부는 2000년 4월 대통령주재의 제4차 정보전략회의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정

보소의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정보사회의 진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른 정보사회를 구현하였지만 계층간의 정보격차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어졌다. 그 결과 정부는 2001년 1월 정보소의계층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정보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을 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1차 종합계획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접근권 환경조성, 법, 제도개선, 정보활용촉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기반조성과 인식개선 등 총 6개의 정책추진과제와 40가지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1차 종합계획에 투자된 5년간 비용은 2조 3천억원이었다. 또 2003년 1월 정보격차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2010년까지 5년간 약 1조 8,858억원이 투입되는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0까지 전체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2005년 당시 53.3%의 수준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1년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이 수립될 당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11.5%였던 것이 제2차 계획을 수립할 2006년 6월 당시 28.9%로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로는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가능지역이 97%로 확대되었으며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받았다.

그동안 추진된 '제1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환경의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면 제2차 종합계획은 정보기술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수혜자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모두가 지역적, 경제적 차별 없이 평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며 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운영, 정보통신 보조기기 4만개 보급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취약계층 500만명에게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다음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⁴⁾

2.3.2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용 종합 목록구축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 중 특히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2003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은 전국의 점자도서

관 및 복지관, 공공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소장 목록을 제공받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에 맞춰 재 구축한 것이다. 현재까지 약 14만 권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www.nl.go.kr/kolisnet)과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http://sigak.nl.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기관의 서지정보를 전송받아 연간 단위로 구축하고 있어 실제로 이들 자료들에 대한 최신정보는 얻을 수 없다. 당초에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구축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자료를 제작하는 기관의 중복제작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연간단위로 목록이 구축되고 있어 중복제작방지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체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의 대부분이 외부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열악한 형편으로 자료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하며 또 목록을 구축할 IT 환경도 인력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제작한 자료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며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

〈표 1〉 연도별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계획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장애인	77,000	82,000	82,000	82,000	77,000	400,000
저소득층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장·노년층	500,000	610,000	630,000	630,000	630,000	3,000,000
농어민	165,000	175,000	170,000	170,000	170,000	850,000
계	892,000	1,017,000	1,032,000	1,032,000	1,027,000	5,000,000

4) 정보통신부,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요약본
<http://blog.naver.com/NBlogMain.nhn?blogId=ramse&Redirect=Log&I...>(검색일자: 2007.06.03)

는 것도 사실이다. 중복제작은 자료를 제작하는 기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외부의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중복으로 제작된 자료인줄 알지만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복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2.3.3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DB 구축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구축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DB를 구축하였다. 장애인 정보접근환경을 개선시켜 사회활동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DB 구축사업은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주요 분야의 대학기본학습서를 대상으로 텍스트DB로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축된 것은 3,417책으로 면수로는 1,301,026에 해당한다. 시각장애인용 원문DB는 국가전자도서관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http://sigak.nl.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원문DB는 점자로 된 파일을 다운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텍스트파일은 저작권관계로 온라인상에서 밖에 볼 수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향후 이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구조적 정보제공과 필요한 부분의 메모 및 북마킹 등의 기능 또한 추가되어진다면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보격차해소에 다소 보탬이 되어질 것으로 본다.

2.3.4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제정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2007.5.22 설립하였다.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공공, 학교, 대학도서관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기능은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장애인서비스 담당자 교육,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지원센터는 설립 후 기반조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국내 도서관서비스 실태조사, 장애인독서환경구축을 위한 대체자료개발 및 보급, 또 연구용역사업으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지침 및 기준제정, 지원센터중장기발전계획,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디지털정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유형의 장애인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각종 장애인서비스의 사례조사와 장애인서비스의 각국의 정책, 서비스의 기준 및 지침 등을 연구하고 있다.

3. 장애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3.1 장애인수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총 210

만1천57명으로 전 인구의 4.59%에 해당한다. 이 중 2005년까지 등록한 장애인 수는 178만이다. 장애유형과 장애인수, 장애출현률은 아래와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에서는 장애의 분류를 상기와 같이 의학

적 측면에서 세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신 자료 및 시설의 접근과 의사소통 등의 측면에서 장애유형을 구분하면 되겠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장애인수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봉사인구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

〈표 2〉 장애유형과 장애인수, 장애출현률

(단위: 천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심장장애
출현율	2.24	0.64	0.60	0.65	0.51	0.35	0.07	0.13
장애인수	1,048	301	280	302	237	164	35	59

구분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출현율	0.22	0.09	0.08	0.03	0.01	0.04	0.06
장애인수	105	41	37	16	5	17	27

〈표 3〉 시도별 장애인수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봉사부담 현황(2005. 12)

구분 시도	인구수	등록 장애인수 (시각장애인)	총인구 대비 장애 인수의 비율	공공 도서관수	1개관당 봉사 대상인구수	1개관당 봉사대상 장애인수 (시각장애인)
서울	10,033,274	297,087(32,533)	2.96	54	185,820	5,502(602.5)
부산	3,605,125	125,936(14,071)	3.49	24	150,214	5,247(586.3)
대구	2,550,516	85,265(9,397)	3.34	13	196,194	6,559(722.8)
인천	2,591,606	93,869(9,727)	3.62	11	235,601	8,534(884.3)
광주	1,433,971	48,485(5,518)	3.38	12	119,498	4,040(459.8)
대전	1,458,269	50,555(5,297)	3.47	15	97,218	3,370(353.1)
울산	1,089,841	34,864(3,546)	3.20	6	181,640	5,811(591.0)
경기	10,711,195	342,153(35,608)	3.19	80	133,890	4,277(445.1)
강원	1,481,438	73,112(6,979)	4.94	40	37,036	1,828(174.5)
충북	1,487,359	67,086(6,598)	4.51	25	59,494	2,683(263.9)
충남	1,902,738	92,634(9,766)	4.87	39	48,788	2,375(250.4)
전북	1,818,780	101,029(10,115)	5.55	37	49,156	2,731(273.3)
전남	1,850,554	107,899(12,267)	5.83	46	40,229	2,346(266.7)
경북	2,650,594	119,814(12,873)	4.52	51	51,972	2,349(252.4)
경남	3,089,521	127,411(12,493)	4.12	42	73,560	3,034(297.5)
제주	539,362	10,201(1,384)	1.89	19	28,387	537(72.8)
계	48,294,143	1,777,400(188,172)	3.68	514	93,957	3,458(366.1)

5)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및 도서관연구소 운영방안 연구』, 2006, p.99.

3.2 데이터 수집

국내 공공도서관들의 장애인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2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대 광역도시의 공공도서관 564개관, 점자도서관 40개관, 특수학교도서관 144개관이였다. 유효표본은 총 575개관(전체 748개관의 76.9%)으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특수학교도서관이 각각 440개관, 37개관, 98개관이였다. 본고에서는 3개 관종 중 공공도서관에만 국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점자도서관과 특수학교도서관들의 이용대상자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

해서는 부득이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본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는 주)월드리서치가 담당하였으며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란 제목으로 최근에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해당구(군) 인구수는 서울(622,173명), 부산(429,439명), 대전(401,193명), 경기(378,436명)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구(군) 평균 인구수는 279,57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수는 서울(19,186명), 대전(15,989명), 부산(15,851명), 대구(12,890명)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인구 비율은 평균 4.8%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중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연 평균이용자수는 292,942명으로 인천(640,235명), 서울(531,339명), 대구(517,399명), 울산(503,287명)으로 높

〈표 4〉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해당구(군) 인구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인구수	622,173	429,439	342,335	327,386	268,370	401,193	200,449	378,436
장애인수	19,186	15,851	12,890	12,364	10,264	15,989	7,027	12,597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인구수	123,881	166,401	151,975	174,154	98,949	144,591	207,177	271,234
장애인수	6,223	7,934	7,657	9,737	5,917	6,912	8,803	11,774

〈표 5〉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연 평균이용자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체 이용자수	531,339	474,299	517,399	640,235	386,020	399,115	503,287	366,743
장애인 이용자수	343	424	304	909	452	851	226	273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체 이용자수	113,129	161,685	132,180	167,366	124,074	117,879	357,042	97,171
장애인 이용자수	380	179	42	1,419	127	221	28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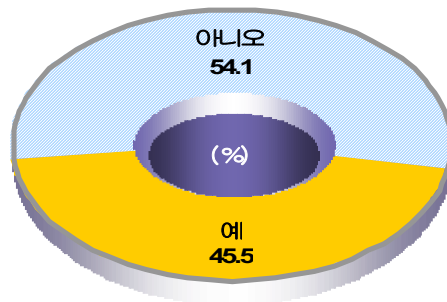
았으며, 장애인들 평균이용자수는 375명으로 전북(1,419명), 인천(909명), 대전(851명), 부산(42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연평균 약 6천명으로 전체이용자 500만 명 중 약 0.1%에 해당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5.5%,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54.1%, 무응답이 0.5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로, 인력 및 예산이 부족(62.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장애인 이용이 적어서(15.0%),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장애인서비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13.7%), 장애인을 서비

스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2.6%), 공간이 협소해서(2.1%), 시설부족(1.7%), 장애인대상 관외대출 택배서비스 예정(1.7%) 등이었다.

공공도서관의 2006년도 총 예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564,719,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장애인 분야의 평균예산은 30,082,6천원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분야의 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192,064.0천원), 대전(95,771.0천원), 경북(11,801.0천원), 인천(8,095.9천원) 등으로 높았으며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예산의 비율로는 인천(15.28%), 전북(13.31%), 제주(10.39%), 대전(8.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 무응답 0.5%

〈그림 1〉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시여부

〈표 6〉 2006년도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총 예산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공공도서관 전체예산	834577.4	446423.8	699692.0	559451.4	537407.7	965152.4	385357.3	1463480.3
장애인 부분 예산	2,956.0	1,442.3	2,790.3	8,095.9	227.3	95,771.0	1,716.4	589.6
비율	3.70	0.39	0.78	15.28	14.30	8.97	0.38	3.21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공공도서관 전체예산	167881.9	319138.1	262934.9	99731.8	217596.5	232046.8	280983.6	267734.0
장애인 분야 예산	96.8	1,778.5	661.5	192,064.0	1,580.0	11,801.0	6,420.2	1,048.7
비율	0.41	2.84	4.48	13.31	4.16	3.45	6.15	10.39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의 여부를 살펴보면 '담당직원이 있다'는 응답이 12.5%인 반면, '담당직원이 없다'는 응답은 87.0%로 높게 나타났다. 무응답은 0.5%이었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담당직원이 '있다'는 경우는 울산(42.9%), 광주(27.3%), 대전(27.3%), 대구(20.0%) 등으로 높았다.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는 평균 1.1명으로 직원 수로 보면 전남이 2.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과 경북은 각각 1.3명,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1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교육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14.1%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역별로 울산(28.6%), 충북(28.6%), 광주(27.3%), 부산(26.1%), 대구(20.0%) 등으로 높은 편이었다.

공공도서관의 응답자 10명중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전문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교육'(76.2%), '대체자료 이해와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이용법'(64.9%), '유형별 장애와 장애인 이해'(64.5%), '수화, 점자교실'(56.9%), '장애인 도서관 방문과 견학'(53.6%), '장애인 정책과 법제의 분석'(25.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서 전문교육 회수 및 과정별 교육시간을 조사한 결과 연 2회 실시와 과정별 2시간(59.8%)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연 1회, 과정별 2시간(28.2%), 연 2회, 과정별 1시간(7.9%), 연 1회, 과정별 1시간(3.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공도서관의 응답자 과반수이상(60.5%)이 사이버교육 개설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8.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 실시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부족(10.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산 및 인력 부족(10.5%)', 이용률저조(8.2%), 장비 및 시설부족(7.3%), 건물 구조적인 문제(4.8%)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교

<표 7> 지역별 장애인 담당직원 비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공공도서관	21.2	8.7	20.0	18.2	27.3	27.3	42.9	18.5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공공도서관	-	4.8	9.7	9.1	5.4	9.3	5.6	7.7

<표 8> 지역별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담당직원의 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공공도서관	13.5	26.1	20.0	-	27.3	-	28.6	10.8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공공도서관	16.1	28.6	3.2	9.1	13.5	18.6	13.9	7.7

육지원(7.5%)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인력지원(5.5%),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지원(5.2%) 등을 바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장애인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웹사이트 접근성 등 다양한 항목들이 조사되었지만 여기서는 지면상 그러한 것들을 생략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라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인구 중 장애인비율은 4.59%에 해당한다. 본 조사를 통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수는 전체 이용자수의 0.1%에 해당하나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의 비율은 45.5%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는 경사로 및 유도블럭 등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로 예산 및 인력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공공도서관의 예산 중 장애인부분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5.76%에 해당한다. 장애인 부분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장애인서비스의 인적현황을 보면 전담직원이 있는 곳이 12.5%이며 이중 평균 담당자수는 1.1명이다. 또 장애인 전담직원의 교육이수정도는 14.1%에 해당하며 전담직원 교육개설을 응답자 10명 중 과반수 이상이 희망하고 있다.

장애인서비스의 애로사항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지식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지원센터의 건의사항으로는 교육지원을 가장 선호

하였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인구비율이 4.59%에 해당하나 공공도서관의 전체 이용자중 장애인이용자수는 0.1%도 채 안된다. 장애인서비스의 걸림돌로 예산 부족을 많이 들었으나 전체예산 중 장애인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은 이용자비율에 비하면 사실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예산보다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도 교육개설을 가장 희망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을 서비스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도 장애인에 대해 이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장애인들 중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인쇄물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장애인단체나 점자도서관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녹음도서나 점자도서들을 복지차원으로 제공받아 이용하여 왔다. 오히려 이러한 기관의 존재로 인해 일반 도서관들이 이들을 서비스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장애인서비스가 발달된 나라들의 도서관들은 일반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서비스제공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오면 직접 서비스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점자도서관 등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⁶⁾

3.4 문제점

3.4.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서비스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일정기간 사서들의 순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면에서와 이용자의 이해와 정보요구 파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분야는 녹음 및 점자 등 대체자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며 또 컴퓨터화면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같은 보조공학기기들의 사용법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직원 순환이 빈번히 일어나는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이 부서의 배치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들은, 가족이나 친지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애인들을 대하지 못하고 성장하여 왔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하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 할 줄을 몰라 겁부터 나기도 한다. 도서관에서 처음 장애인을 대했을 때의 경험이 뭔가 불편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면 사람에게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대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된다. 장애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서들의 장애

및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어느 도서관 이용자가 우연히 사서들이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를 서가 너머로 듣고 다시는 그 도서관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저 사람은 오면 늘 도와달라고 해.” “눈이 점점 더 나빠지나봐.” 한 사서가 다른 사서에게 말했다.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 뭐” “찾으려고만 해봐, 왜 못 찾겠어”, “야, 지난번에 봤는데 그 사람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얼른 찾더라.”고 다른 사서가 말하였다.⁷⁾

사실 그 이용자는 서가에 꽂힌 책을 찾기가 매우 힘든 중시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은 주변 시력을 이용하여 머리를 이리 저리 돌려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시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특히 동전같이 반짝거리는 물체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이러한 장애의 특성을 전연 몰랐던 그 사서들의 대화로 인해 결국 그 이용자는 다시는 그 도서관을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상기의 예와는 좀 다르나 비장애 사서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장애인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최첨단분야의 기술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으려 여러 도서관을

6) 2000. 3. 1 방문한 네덜란드의 The Dutch Library for visually and print handicapped students and professionals의 사서와의 대화내용 일부를 발췌함.

7) John Collins,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being partially sighted,” *Looking ahead: A practical look at new developm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England: Ulverscroft Large Print Books Ltd, 1994, p.71.

다녔다고 하였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자료가 많지 않자 그는 이상하게 여겨, 참고상담 직원들이 그가 대면하여 문의했을 때 자신의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혹시 자신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직접대면하지 않고 가기 전에 미리 필요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 예상했던 대로 많은 자료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 학생은 전과목 A를 받은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서들이 그를 잘못 평가하였던 것이다.⁸⁾

사실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자신들의 장애가 아니라 바로 비장애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 자기들을 바보로 혹은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을까, 오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는 등 이러한 염려들이 이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사실 상 이러한 부담이 그 어떤 물리적 장벽보다도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도서관의 장애인통합서비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다.

이외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지나치게 대우했을 때도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장애인전용승강기, 장애인전용열람석, 장애인전용홈페이지 등도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사실 장애인들은 장애

인전용이라고 한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사회이든 남과 다르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지칭하기를 '장애우'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을 비장애인들이 친구처럼 대한다는 배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더하면 이 말 만큼 무례한 말도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장애인들에게는 어르신네도 없다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 또한 이 용어를 듣기 거부해 하며 장애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은 사라지지 않고 통용되고 있다. 지나친 배려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초래 된 것들이다. 또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인적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거나 청각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전화한통이면 된다. 그러나 돈으로도 범으로도 쉽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4.2 웹 접근성

디지털정보서비스가 보편화되어짐에 따라 웹접근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도서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도

8) Karen Pirog, "Attitudinal and Physical Barriers Facing the Disabled Library Patron," *Current Studies in Librarianship*, Vol. 9(112), Spring/Fall 1985, p.42.

서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정보를 시각장애인들도 접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해상도가 낮은 PDF 파일로 구축하고 있어 스크린리더로 읽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OCR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 DPI는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디지털 타이핑 한 것이 120 DPI 정도다. 이외에도 OCR이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글자체(fonts)는 신명조체이나 다양한 글자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글에는 한글, 영어, 한자가 섞여 있어 PDF파일의 약 70-80%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다.⁹⁾ OCR이 95%이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도 중요한 글자가 깨어지면 결국은 그 95%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웹 콘텐츠의 문제도 문제지만 웹 사이트의 접근성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웹 사이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디자인되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웹 사이트를 사용하기를 바란다. 시각장애인들이 별도의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보다 무엇보다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 사이트보다 정보의 내용면에서 또 업데이트 주기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외국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웹 사이트(TEXT ONLY)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별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차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시각장애인을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텍스트를 주로 하여 디자인한 외국의 사이트를 볼 때면 플래쉬 기능과 또 화려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디자인한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에 비해 그들의 기술이 뒤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적절한 글자체의 선택과 크기를 조절하며 또 배경과 글자의 색깔을 대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텍스트가 주가 된 웹사이트를 디자인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저조한 편이며 또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는 전문 디자이너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3.4.3 정보격차에 대한 문헌정보학계의 관심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시키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도서관에서는 정작 정보화시대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들의 정보격차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의 장애인정보격차해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편수를 세어보았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2000년 3월호부터 2007년 9월호까지 게재된 장애인관련 논문들이 총 970여 편인 데 이 중 5편이 장애인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 5편은 아래와 같다.

9) 김정호,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마케팅사업부 이사와의 면담 내용의 일부를 발췌(면담일시: 2007.9.14. 14:00 ~ 15:00).

〈표 9〉 2000.3~2007.9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소외계층관련 논문 수

번호	저자	서명	*	**	연도
4	육근혜	책읽어주기 활동이 시각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07.03
8	배경재 곽승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구축에 관한 연구	○		'06.06
12	김영신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실 서비스에 관한조사연구		○	'04.09
17	전재봉	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		○	'02.12
18	강숙희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01.12

*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가장 최근에 게재된 논문으로는 육근혜의 *책읽어주기 활동이 시각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공공도서관들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책읽기가 시각장애아동들의 독서흥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다음으로 2006년에 게재된 배경재, 곽승진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구축에 관한 연구* LG상남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NFC(New Field Communication)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을 활용한 디지털 녹음도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녹음도서를 웹,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면서 유비쿼터스 도서관구축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2004년 김영신의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실 서비스에 관한조사연구*는 대한한밭도서관시각장애인실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인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의 가장 시급한 것이 점자도서관, 복지기관,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역할 분담으로 나타났다.

2002년 전재봉의 *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는 핵심이 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을 상호 비교하며 국가적 차원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의 표준화 정책이 이루어져함을 강조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2001년 강숙희의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의 기술적 기반 및 그 활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문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6편 중 5편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가 우리사회에 화두가 된 지도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 분야의 연구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정보소외계층은 소외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 향후 연구과제

도서관자료의 대부분이 인쇄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력의 손상은 도서관에서는 그 어떤 장애보다 가장 불리한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물의 대부분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타 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그나마 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 등에서 녹음도서나 점자책을 제공받아 아쉬운 데로 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특히 선천적이거나 혹은 유아기에 청력을 상실한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거의 평생 문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력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언어의 발달은 먼저 들음에서 시작하는데 청력의 상실은 유아기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천성 시각장애인들은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수화를 사용하는데 수화는 건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어순도 다르며 내용도 단순화되어졌다. 그래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건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마치 외국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서관의 책들도 이들에게는 거의 외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한 농아인단체가 청각장애어린이를 위해 수화로 된

동화동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웹사이트에 올려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댓글을 통해 많은 성인 농인들이 수화동영상을 즐기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 수화동영상자료를 보고 비로소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했다.¹⁰⁾

많은 나라에서 청각장애는 두 번째로 흔한 장애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체장애인 다름으로 청각장애인이 많다. 영미국가에서는 6명 중 1명이 청각장애로 나타나 있다. 청각장애인들의 수가 타 장애인들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또 일반 건청인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을 가장 고독한 장애인들이라고 한다. 눈에 쉽게 띄지 않기 때문에 지체나 시각장애인들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무관심과 철저한 소외가 이들을 가장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한다.¹¹⁾

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다. 사서들과의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다. 책을 찾고 싶어도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찾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가에 대한 가이드와 책을 찾는 정보가 글로 나타나 있지만 그 글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단어를 아는 것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10)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방문 면담내용 중 일부 발췌(면담일시: 2007.4.3. 10:00 ~ 12:00).

11) Michael Martin and Brian Grover, *Hearing Loss: Patient Handbook 24*, Edinburgh: Churchill Livingstone, 1986.p. Forward, 재인용 Young Sook Lee, *Accessible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model for Korean Libraries*, Ph.D thesis in University College London, 2001, p.53.

같다. 그래서 IFLA에서는 언어발달이 늦은 청각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 기존의 책을 쉽게 고쳐 쓴 easy-to-read book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각국 도서관계에 이들 청각장애인들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체장애인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체장애인은 편의시설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도 다 각각 다른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장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중전의 연구들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주로 서비스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관계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축적되어 오지 못했다.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연구가 밀박침이 될 때 다양한 장애인들의 정보욕구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유형 중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읽기쓰기장애(Dyslexia)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읽기쓰기장애를 영어에서는 Dyslexia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이라고 한다. 서구에서는 인구 10명 1명이 난독증자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교육계와 도서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난독증은 지능지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뇌 기능의 이상으로 생긴 것으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읽기와 쓰기를 잘 못하여 대부분은 학생 시절 학습부진아로 게으르고 태만한 것으로 낙인찍혀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2006년 세계도서관정

보대회때 연구자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IFLA 소외계층도서관서비스분과(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의 대회주제를 "Dyslexia"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채택되어 2006년 대회주제가 *Services to Dyslexic Patron*으로 정해졌으며 난독증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중 한국에서는 삼성의료원 정신과 홍성두 교수가 의학적 측면에서 디스렉시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¹²⁾ 다음은 그의 발표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난독증자들의 인쇄물읽기의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제 난독증자에게는 위와 같이 보여진 것이다.

One day, John and Bob went for a walk.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Bob asked John. "I don't know." John replied, what would you like to do? I think I might enjoy watching a movie on TV, especially if we can have some popcorn. "Wow," said John. Popcorn! What a great idea! Let's check the cupboard to see if my mother bought some.....time she went shopping." Look he yelled Great Bob shouted Let's cook .. In the microwave and see how it turns out.

선진국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과 글을 연결시켜주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여 언어훈련을 시키고 있다. 특히 덴마크와 일본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을 위하여 디지

12) Sungdo David Hond, *Dyslexia: Med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72 IFLA/WLIC, Seou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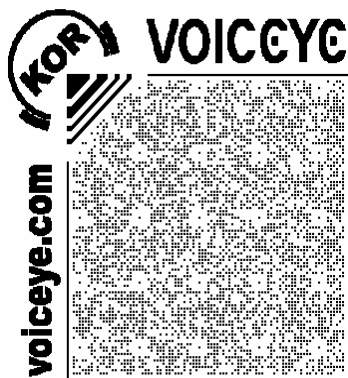
Onegay, Jo n anp Bop w n froa w a k. "W hatwo ou l k
 e t l ulpy
 t o a
 op op y?, Boq ske John. "I do n'tk ow, J onh red ed,
 t p
 hatwo lpyo u li e ot go?" It in I mi ten o yw at c hin g a
 w u
 o i nTV, e e ia l y fiw e c av es me do ron. "Wow,"
 m v eo an h o dc
 saip Jonh, "Po c n! hat g eati Let's e k t e
 or W a r pea! ch c t h
 uq r t e e fim y m the gh s o he stalt im e wetn
 c qoa d o s e rpou t met esh
 s in
 hodb g." "Look," hey e ep, "af l u n pit's r il e
 ll lpoxa O v l
 e
 R pgenqocker! M yf a r u eq, "Le t'sc k
 v o i te!" "Gr eat!" Bopsho t o t
 udi i r wa
 c o nqs e woh ti truns
 nt hem vea e tou."

Trying to read this passage, you will experience the kind of difficulty a dyslexic reader faces when deciphering normal typeface (Almeida).

from p. 98, in: Capossela, T.L. (1998). The Harcourt Brace Guide to Peer Tutoring. Orlando, FL: Harcourt Brace & Company.

털 오디오 복인 DAISY(Digital Audio-based Information System)를 이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점자도서관이 DAISY자료를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시각장애인에게 국한시키고 있으나 향후 이들 장애인들에게도

서비스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최근 보조공학기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2차원 바코드인 보이스아이(VOICEYE)가 난독증자에게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이스아이는 시각장애인의 음성출력용으



<그림 2> 보이스아이 심볼(SW)



<그림 3> 보이스아이 메이트(HW)

로 고밀도의 대용량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행자부의 민원서류 및 법원 판결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발간물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중 선천적 혹은 유아기에 시력을 상실한 이들보다 인쇄물을 접해온 중도실명자나 질병이나 노안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인쇄매체를 읽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보이스아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읽기와 쓰기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5. 결론

장애인정보격차해소가 우리사회에 화두가 된지도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에 도서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정보격차해소는 우리 도서관계에서 여전히 냉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장애인정보격차해소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논의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을 통해본 장애인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 분야의 연구과제로 장애인자체에 대한 이용자연구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정보격차를 궁극적으로는 유엔의 장애인의 해 선포와 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맥락에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에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먼저 본고에서는 장애인에 대

한 정의와 각종 장애인 관련법들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어서 장애인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정책과 또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한 주요사업들을 열거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이용자수는 전체이용자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이해와 지식의 부족을 들었다. 장애인서비스의 향후 연구과제로는 종전의 연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청각,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연구 되어진 난독증에 대해 우리도서관계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새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2007년 5월 22일 설립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우리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장애라는 이유로 보편적서비스에서 오랫동안 제한, 배제, 분리, 거부되었던 이들 장애인들을 서비스 중앙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도서관계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및 도서관연구소 운영방안 연구』, 2006, p.99.
-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최종보고서, 2007, p.21.
- 정보통신부,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요약본.
<http://blog.naver.com/NBlogMain.nhn?blogid=ramse&Redirect=Log&I...>
 (검색일자: 2007.06.03)
- Collins, John,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being partially sighted', *Looking ahead: A practical look at new developm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Leicester, England: Ulverscroft Large Print Books Ltd, 1994, p.71.
- Epp, Mary Anne, "Closing the 95 Percent Gap: Library Resource Sharing for People with Print Disabilities." *Library Trends*, Vol.54(3), Winter 2006, p.412.
- Hong, Sungdo David, *Dyslexia: Med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72 IFLA/WLIC, Seoul, Korea, 2006.
- Lee, Young Sook, *Integra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to Mainstream Library Services*, paper presented at the 73th IFLA/WLIC 2007, Durban, South Africa, p.5.
- Martin, Michael and Grover, Brian, *Hearing Loss: Patient Handbook 24, Edinburgh*: Churchill Livingstone, 1986, p. Forward, 재인용. Young Sook Lee, *Accessible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model for Korean Libraries*, Ph.D thesis in University College London, 2001, p.53.
- Pirog, Karen, "Attitudinal and Physical Barriers Facing the Disabled Library Patron," *Current Studies in Librarianship*, Vol. 9(112), Spring/Fall 1985, p.42.

